

신주쿠뉴스



외국어판 홈페이지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新宿ニュース

<http://www.city.shinjuku.tokyo.jp/foreign/korean/>

각 담당부서에 문의할 경우는, 일본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5 호

2006 년 6 월 25 일 발행

발행 신주쿠구 지역문화부 문화국제과

전화 : 03-5273-4069

FAX : 03-3209-1500

우 160-8472 도쿄도 신주쿠구 가부키초 1-4-1

여름을 즐기자 여름특집

일본의 여름은 여름축제와 밤의 불꽃놀이 등, 아이에서 어른까지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계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주쿠에서 행해지는 여름의 축제를 소개합니다.

유카타로 오세요 파리시장

7 월 26 일 (수) · 27 일 (목) 오후 6 시 ~10 시



빨간 토리이의 히야몬텐을
중심으로 '파리시장' 이 열립니
다. 주홍색 열매가 선명한 파
리 화분
과 유
카타의
판 매,
그리고 납량 비어가든이 열
립니다. 유카타 입어보기 서
비스와 카구라사카 거리 걷
기 안내서비스도 있습니다.

토쿄메트로 토자이선
카구라사카



모두 함께 춤을 춰요 아와오도리 춤

7 월 28 일 (금) · 29 일 (토) 오후 7 시 ~9 시

아와오도리 춤은 토쿠시마현
발상의 봉오도리 춤으로, 현재
는 일본 각지의 행사에서 널리
추워지
고 있
습니다.



샤미센과 피리, 북의
경쾌한 가락에 맞추어, 수십명
의 그룹이 언덕을 춤추며 행
진합니다. 카구라사카 언덕은
일시에 뜨거운 흥분으로 가득
참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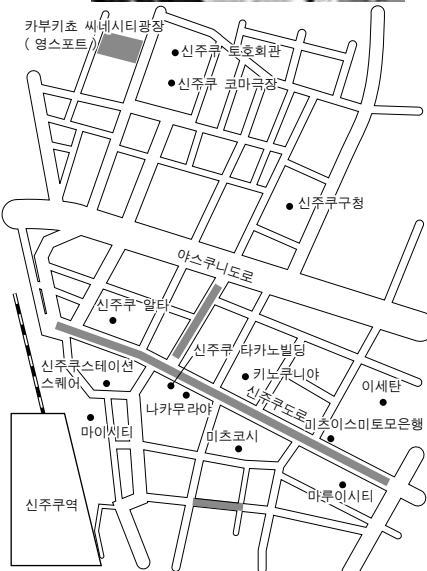
문의 탄스마치 특별출장소 03-3260-1911 <http://www.syoutengai-web.net/kagura/maturi14.htm>

거리가 오키나와 일색 신주쿠 에이사축제

오키나와 전통예능인 에이사축제.
본고장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구내와
근린에서 500 명이나 되는 에이사팀
이 출연. 활력넘치는 축제의 북과
무용으로 신주쿠 동출구는 실로 오키
나와 물결을 이룹니다. 축제의 열
기에 빠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http://shinjuku-eisa.jp/> 를 보시기 바랍니다.



카부키초 씨네시티광장
(영스포츠타워)



일 시 7 월 29 일 (토)
오후 1 시 ~9 시 30 분 예정
(적은 비에는 결행)
※ 신주쿠도로는 오후 1 시
~5 시 30 분에 합니다.
장 소 신주쿠도로, 카부키초 씨
네시티광장 외

일간스포츠 주최 2006 진구가이엔 불꽃대회



약 10,000 발의 불
꽃이 쏘아올려지는
여름 향례의 불꽃
대회.
진구가이엔 유료관
람 4 회장에서는 박
력있는 불꽃과 이
벤트를 즐길 수 있
습니다.

일 시 8 월 16 일 (수) (우천시에
는 17 일로 연기)
개시시간 / 오후 7 시 30 분
종료예정 / 오후 8 시 30 분
장 소 메이지진구가이엔 (카스미가
오카마치 1-1)
문 의 일간스포츠신문사 대회사무국
03-3547-0900

다음호의 발행예정은 2006년 9월 입니다. 구청, 신주쿠다문화공생플라자, 출장소, 도서관 등 각 공공기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야오야클럽

육아학급 무료 · 통역있음

외국인 아빠 · 엄마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친구를 사귀는 클럽입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청은 필요없으며, 아이와 함께 당일 직접 회장에 오십시오.

일 시 8월 30일(수) 오전 10시~12시

장 소 니시신주쿠보건센터(니시신주쿠 7-5-8)

대 상 0~3세아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통 역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이외의 통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 문의 신주쿠구 생애학습재단 사업과

TEL: 03-3232-7701

FAX: 03-3209-1833

알짜정보 구의 휴양소에서 한가롭게 온천을

일본에는 온천이 많고, 세계에서 일본인은 온천을 좋아하는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수질의 온천이 많으며, 옛부터 원기회복 ·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어 즐겨왔습니다.

당신도 구의 휴양소를 이용하여 하코네에서 한가롭게 온천을 즐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계절의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구휴양소 하코네 츠츠지장(진달래장), 아지사이장(자양화장)(가나가와현)

숙박요금 1박 2식 신주쿠구민 5,700엔 ~
기타 7,100엔 ~ (요금 현지 지불)

신청 신주쿠구민의 우선 예약후, 빈방이 있는 경우는 전화예약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킨키니혼투어리스트(주) 구청내 영업소
(신주쿠구청 제1분청사 지하 2층)

03-5273-3881(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http://www17.ocn.ne.jp/~tsutsuji/> (츠츠지장)

<http://www.hakone-tozan.co.jp/hakone-ajisai/index.htm> (아지사이장)



츠츠지장의 온천 흐르는 머드탕

〈욕탕에 들어가는 요령〉
몸을 욕조 밖에서 씻어, 더러움을 없애고나서 욕탕에 들어갑니다. 모두 함께 들어가는 욕탕은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아지사이장 저녁식사의 일례

2007년 4월에 구립 초·중학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분에게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6년간, 중학교 3년간의 합계 9년간, 나이로는 만 6세에서 15세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일본의 초·중학교에 취학할 의무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에 따라 입학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교육법에 의해 일본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일본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할 경우는 다음의 수속을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2000년 4월 2일~2001년 4월 1일에 태어난 사람
중학교 입학대상자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에 태어난 사람
신청기간 초등학교의 입학은 9월 1일(금)~29일(금)

중학교의 입학은 10월 2일(월)~10월 31일(화)

신청방법 사전에 학교운영과에서 송부하는 '알림'과 본인의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지참하고 교육위원회 학교운영과에서, 일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신청 · 문의 학교운영과 03-5273-3089

중학교 졸업까지의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2006년 4월부터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초등학교 졸업전까지로 변경되고, 소득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신주쿠구에서는 '신주쿠구 아동수당'을 신설하여, 국가의 아동수당이 종료된 중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모두 새로 대상이 된 분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단 수급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신고를 마치고 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십시오.

문의 어린이가정과 육성계 03-5273-4546

여름에는 식중독에 주의합시다

여름은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식중독은 주로 설사 · 복통 · 구토의 증상이 나타나며,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는 중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식중독 예방의 3원칙

- 1 청결히 한다(잘 씻는 등 세균을 묻히지 않는다) 냉장고 등에 식품을 저온보존한다.
- 2 요리를 했으면 신속하게 먹는다(세균을 증식시키지 않는다)
- 3 속까지 충분히 가열한다(세균을 사멸시킨다)

문의 위생과 식품보건계 03-5273-3827

독일에서 청소년 파견단이 내일

신주쿠구와 베를린시 미테구

국가의 수도 중심에 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등의 공통 특색을 가지고 있는 두 구는, 교류를



구청장에게 축하방문

거듭해 1994년에 우호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호간에 국가를 방문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은 14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9일에

14세에서 22세의 남녀 12명이 독일에서 내일하였습니다.

일본사회 · 문화를 접하다

12일간의 체류는 와세다대학생 서클과의 교류와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 다양. 실제로 신주쿠의 풍경을 접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은 괜찮은가?”, “노숙자가 많은데 사회적 원조는 있는 것인가”, “독일에는 마이스터제도가 있는데 일본에는?” 하는 솔직한 질문도.

또한 ‘신주쿠구 여성 해외연수자의 모임’ 멤버의

지도하에 꽃꽂이, 다도, 키모노에도 도전했습니다. “키모노를 입어 사무라이가 된 기분” (게오르그), “꽃꽂이로 일본의 공간미학, 단순화의 미를 배웠습니다” (지문), “감수성이 풍부해졌습니다” (야스민) 등 일본문화를 배웠습니다.

독일청소년의 목소리

국제이해강좌에서는 구민들 다도에 도전. 정작가 괴로운 듯 앞에서 판토마임극을 섞어, ‘독일의 젊은이’를 테마로 발표. 독일에서는 싱글파와 재혼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 최근 불황으로 실업률이 약 11.3%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 축구와 배구 이외에 카라데와 유도도 활발하다는 내용 등을 소개했습니다.

회장에서는 일본에는 없는 병역제도와 직업훈련 등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단장인 크루츠 씨는 “많은 구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원을 받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신주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라고 맺음말을 했습니다.



다도에 도전. 정작가 괴로운 듯

신주쿠구 여유있게 산책 100주년을 맞이하는 신주쿠교엔

제 4 회

사계절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도심의 오아시스

신주쿠교엔이 생기고나서 올해로 100년을 맞이합니다.

풍성한 자연으로 넘치는 신주쿠교엔은 에도시대에 신슈타카토오 번주 나카토 씨의 집터가 있던 곳으로, 1907년 황실의 정원으로 만들어져, 전후 일반에게 공개되어 도심의 쉼터로 친숙해져 있습니다.

넓이는 58.3헥타르, 둘레는 3.5km 정도가 되며, 프랑스식 조형정원과 영국풍 정원, 그리고 일본정원이 교묘하게 어우러진, 그리 흔치 않은 국가 풍경식 정원의 명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거진 수목은 2만 그루가 넘으며, 그 중에서도 1,500 그루의 벚꽃은 정원의 커다란 특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상을 하러 방문합니다.

또한 황실의 국화 가꾸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국화

소 재 지 : 토쿄도 신주쿠구 나이트초 11

개장시간 : 9:00~16:00 (폐장은 16:30)

휴 장 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경축일인 경우는 다음날),

연말연시 (12/29~1/3)

입 장 료 : 어른 200 엔, 초중학생 50 엔, 유아 무료

문 의 : 03-3350-0151 (관리사무소)

영어판 홈페이지 :

<http://www.shinjukugyoen.go.jp/english/english-index.html>

의 재배도 하고 있으며, 이들 국화를 전시하는 국화 화단은 가을의 인기몰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열대, 아열대의 다채로운 꽃과 희귀한 초목, 난 등 약 2,300종 정도가 모아져 있는 대형 온실도 있으며, 빛깔 고운 꽃과 녹색의 세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0년을 맞이하는 신주쿠교엔에서는 많은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신주쿠구에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본정원



프랑스식 조형정원

● ‘센다가야몬’ 방문
JR 소부선 ‘센다가야역’에서 도보 5분, 도영 오오에도선 국립경기장역 A5 출구에서 도보 5분

● ‘신주쿠문’ 방문
JR · 게이오 · 오다큐선 신주쿠역 남출구에서 도보 10분, 마루노우치선 신주쿠교엔마에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도영 신주쿠선 신주쿠 3초메역 C1/C5 출구에서 도보 5분

● ‘오오에도문’ 방문
마루노우치선 신주쿠교엔마에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공생 최전선

신주쿠 다문화공생프라자가 오픈되어 반년여. 매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가운데, 프라자를 활동의 거점으로 하는 단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하나인 '토쿄 러시아클럽'을 방문하여, 회장인 미하일 씨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나이·민족을 초월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류회 토쿄 러시아클럽

—러시아클럽의 설립계기를 알려 주십시오.

나 자신은 일본에 온지 14년이 되었지만, 처음 생각한 것이 어째서 일본에는 아메리카클럽이 있는데 러시아클럽은 없을까?(웃음) 그래서 러시아대사관과 교섭하여 1992년에 클럽이 스타트한 것입니다.



회장인 미하일 모즈제치코 씨
NHK TV·러시아어 회화에도 출연

—러시아클럽의 멤버는?

러시아인이란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여러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멀리 하치오지시와 이바라키현에서 참가하고 있는 러시아인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에 오래 살았더라도 때로는 역시 모국어로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참가자 중에 일본 사람도 있는 듯한데

'러시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 '러시아 문화를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대환영입니다. 오늘도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일본인 대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클럽의 사이트에서 이벤트 예정을 알리고, 참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모이는 자유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클럽의 활동은?

거의 매주 주말에 '문화를 배우는 날', '어린이의



'프라자는 교통도 좋고, 깨끗한 시설로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멤버인 마리 씨 (사진 우측)

의 날' 등 다양한 테마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와 웃입기를 배우거나, 러시아 민요를 부릅니다. '어린이의 날'에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5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은 대부분 일본어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 '어린이의 날'은 어린이들이 러시아어로 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야외이벤트도 있습니다. 일본인 멤버의 안내 가이드를 받으며, 꽃구경 관광을 하거나, 바베큐를 합니다. 러시아 출신 권투 선수의 시합에 응원을 하러 간 적도 있습니다. 멤버간에 러시아어 비디오와 CD, 책 빌려주기도 활발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을 휘두르거나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남편으로 괴로워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싼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단 주택을 권하거나, 일본생활이 오래된 선배들이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교류와 서포트는 클럽의 커다란 역할입니다.



나가토로의 벚꽃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클럽에서는 러시아인 사이의 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러시아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는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웃음).

앞으로는 꽃꽂이와 다도, 붓글씨 등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도해주실 분이 계시면 대환영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워 상호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쿄 러시아클럽 <http://www.yaponist.com>